

특집

상반기 조경사업 결산과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불불기 시작한 인력 및 자재파동은 조경사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조경사업의 주소재인 조경수의 수급현황과 가격전망, 인력수급, 그리고 기술적 문제점에 대하여 특집을 꾸며 보았습니다.

- 8 상반기 조경수 수급현황과 하반기 가격전망
- 12 식재사업 현장의 인력 수급문제
- 13 조경식재 시공의 기술적 문제점

상반기 조경수 수급현황과 하반기 가격전망



이영복 / 영산조경 대표

1. 서론

우리나라 조경용 식물이 본격적으로 이용된 것은 70년대 초 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전에는 조경수라기 보다 가로수와 가정정원의 관상수등 한정된 곳에만 활용되었고, 전문재배자인 몇몇 관상수농장을 제외하고는 농촌의 집주변이나 밭가에 심어 부업으로 소량이 생산되었을 뿐이었다. 70년대 산업사회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생활환경 및 사회간접 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조경공사 물량이 상승하므로 조경용 수목재배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경수 재배가 부업에서 탈피하여 주업으로 전환될 때 누구나 재배하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관리비도 못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자 희망과 의욕이 상실되어 밀식상태로 방치하여 두는 재배자가 늘고 타작물로 대치하기 위하여 갈아 엮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조경의 중요한 소재로서의 수목은 다른 건설자재와는 달리 생물체라는 특성이 있다. 기계에 의해 무한히 생산해 내는 건설자재는 균일성이나 불변성을 갖고 있지만 조경수라는 것은 성장하므로써 변화를 주고 자연변화에 동참하면서 생활에 리듬을 주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문화혜택을 받는 현대사회에서 자연혜택을 받기 위하여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생산과정이 길어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며 수요 또한 불확실하여 생산에만 열중하다 보면 과잉생산이 되기 쉬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 할 때가 많다.

2.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것과 달리, 조경수는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 수년간 온갖 정성과 땀과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그렇게 정성들여 키운 조경수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도 수요가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은 출하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경수 목재배를 쉽게 생각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기관 및 발주처 별로 매년 조경수 생산현황을 조사하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현황 파악이 불확실하여 수목재배량 조절이 어렵다.

좀 오래된 자료지만 산림청 86관상수사업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포지수는 3,615개고 사업면적은 2,484ha, 총사업본수는 128개 수종에 46,984,571 본으로 되어 있다. 81년도 2,569ha에 비하여 86년도에는 2,484ha로 감소된 상태고 총사업본수는 41,650,000주에서 46,984,571본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로 볼 때, 생산업자가 소규모의 부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전문화하여 산재되어 있는 포지를 밀집시켜 대단위로 조경수목생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이렇게 많은 수종과 수량이 생산되었지만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등 국제적인 행사와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공원등 대단위 공사에 상당한 물량이 소비되어 앞으로 소요되어질 조경수목을 생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조경수목 생산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추상적인 수요전망만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계획성있는 생산을 하기 어려운 점과 어두운 시장정보, 즉 사실상 생산자들은 실수요자와 직거래가 거의 없는 데다 앞으로 사용될 수종에 관한 정보가 공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수목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으며 발주관서나 설계자들과 교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전망있는 신규수종이나 실수요자측에서 요구하는 수종 및 수목의 질적수준을 알 지 못하고 있어 수목유통과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조경수목생산에서의 재투자 기피현상, 다시 말해서 생산에서 얻은 수익을 수목생산을 위한 재투자자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그리고 포지의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세하다는 것과 전문재배인에 의한 생산체제가 되지 않는 점, 새로운 수종의 개발보다 인기가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일부 수종만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어 신규수종 수요없이 특정 수종만의 편중으로 생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3. 수급현황

그동안 많은 양의 수요와 장기간의 성장기간을 요하는 취약점 때문에 앞으로의 수급물량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기존 물량중 양호한 수형과 규격에 알맞는 수종은 이미 소모되었으며 상품으로 가치가 없는 수량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기있는 수종은 공급이 불가피하며 설혹 소재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 수요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가로수 수종인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왕벚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아 등은 흉고직경 4cm~6cm 규격은 구입이 용이하지만 흉고 8cm 이상은 구입이 매우 어렵다. 특히 벚나무 계통에 있어서는 산벚나무만이 다소 재배되고 있을 뿐 왕벚나무는 찾아볼 수 없고 흑 있다 하더라도 수형이 불량한 것이 많아 사실상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상록계통인 소나무, 잣나무, 해송, 구상나무, 스트로브잣나무, 가이즈까향나무, 서양측백, 섬잣나무, 독일가문비등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중, 해송, 잣나무, 서양측백, 스트로브잣나무등을 제외한 수종은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낙엽교목인 느티나무, 목련, 단풍나무, 산수유, 벚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회화나무, 산딸나무, 층층나무, 느릅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감나무, 칠엽수, 당단풍, 은단풍, 자귀나무, 목백합, 꽃사과, 계수나무, 등등이 있는데 역시 규격이 작은 것은 구입이 용이하나 대목(大木)은 구입이 쉽지 않다.

낙엽관목인 자산홍, 영산홍, 겹철쭉, 장미, 말채나무, 병꽃나무, 쥐똥나무, 산철쭉, 개나리, 수수꽃다리, 화살나무, 수국, 명자나무, 매자나무, 흰말채나무 등등은 수급기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불이익을 초래하고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수목구입에 애로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자가 재배를 꺼리게 되어 자연적으로 생산량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ex. 자산홍, 영산홍, 겹철쭉, 장미, 산철쭉 등) 상록관목인 회양목, 눈주목, 눈향나무, 등근향, 옥향등은 다소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가격차가 심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마찰이 생기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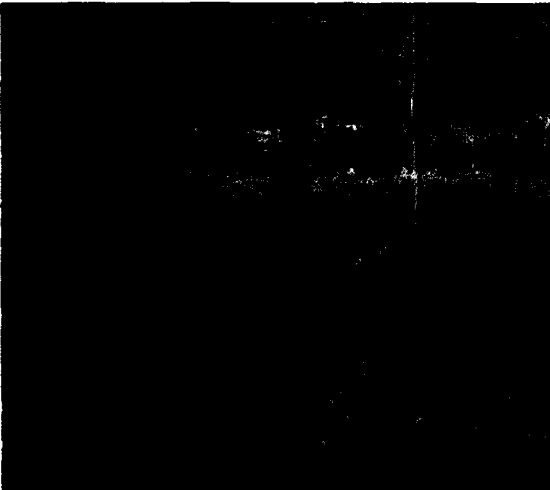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인기수종 및 많이 수급되는 수종을 나열해 보았는데 수급이 용이한 것은 몇가지 수종으



산지의 독일가문비



금송 및 향나무(산지)



금송 및 향나무(산지)



단풍나무 및 향나무

로 한정되어 있다. 앞으로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 개발, 각 공사(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서울시의 기타 정부기관 및 여러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박람회장 조경공사도 부분적으로 이미 발주되어 상당한 물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 지려면 앞서 거론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조경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 및 업체는 각자 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구입하여 사용한 소재를 보유수종으로 최대활용토록 하고 지방 전문재배자와 계약재배하여 인원분산 및 재배자의 기술을 향상시켜 적기적시에 수급이 용이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중간상인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되도록 상호협조 체제를 이루도록 한다.

4. 전반기 가격동향

재배자가 포지에서 수목을 성장시켜 성목이 되어 수요가 이루어지는 출하시 까지의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가 원가계산이 된다. 원가계산에서 굴취비와 운반비를 포함하여 현장(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는 동안의 순수목 구입비가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가격의 변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수목유통과정을 보면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직접 거래하는 1단계와 생산자와 수요자 중간에 생산지 조달 중간 상인이 있어 수요자에게 거래하게 하는 2단계, 생산자·생산자 조달 중간 상인·소비자 중간 상인에서 실수요자에게 거래되는 3단계, 그리고 생산자에게 소비자 중간 상인을 거쳐 실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등 여러가지 유통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통용되는 과정은 조경용 수목의 수종별 생산과 현황과 수요자를 중간 상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이유로 중간 상인을 통한 수목거래이다. 중간 상인들은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본이 영세하기 때문에 수목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 보다 수요자의 자금으로 수목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산자가 수목을 상품으로 키워 놓으면 포지 혹은 산지에 수목 그 자체의 값이 형성되며 실수요자와 중간상인은 인부를 투입하여 굴취·운반을 해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관리비가 많이 들게 되자 자연적으로 수목값이 비싸게 매겨지게 되고, 중간 상인도 인건비 및 운반비의 상승등을 들어 또한 비싼 경비를 더 붙이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실수요자는 할 수 없이 고가의 수목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91년도 상반기에 거래되었던 조경수목 단가가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30%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던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하반기 수목가격의 전망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재비 인상, 인건비 인상으로 조경수목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

특히 잔디 및 화목류, 관목류 등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생산원가에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조경수목에 비하여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잡초제거, 약제살포, 관수작업 등이 모든 것들이 비싼 임금을 투입하여 관리하다 보니 가격은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몇가지 수종을 나열하여 보면 잣나무 20%, 은행나무 20%, 느티나무 25%, 목련 18%, 대추나무 25%, 단풍나무 20%, 철쭉류 40%, 잔디 25%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수종에 있어서선 고시가격 이상을 주고도 구입이 어렵다.

이렇듯 수요에 있어 공급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인건비까지 상승하여 조경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일단 고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된 만큼의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 현 시점이다. 기계화를 도입하기엔 아직 현실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분산된 포지를 집단화 시키는

것과 기계기술의 습득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영세업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안정된 가격이 형성되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6. 결 론

규격과 수형에 의존해 왔던 조경수가 제 위치를 잃어가고 불량한 채 서 있는 모습을 접할 때면 우리 조경인들의 손길이 닿아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둔다는 것이 인간의 무지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나태함과 무관심속에서 자연은 자연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경인은 보다 나은 조경소재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감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자연을 길이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수목의 체계적인 유통과정과 전문재배인의 양성은 현 조경업체에 있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며,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건설인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목가격전망도 지금으로 보서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실거래 인상만큼 기관부처의 수목가격은 따라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업자들은 적자폭을 줄일 수 없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에 조경업자들간의 긴밀한 유대가 더욱 필요되어 짐은 물론 조경수목 생산자 및 중간상인과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수목 가격의 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 적당한 이윤과 함께 기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토개발의 일원으로 번영하는 국가산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